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36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수특 문학 고전시가 3 p.118~121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A]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비로소 황제(黃帝)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야(山野)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숲 화로로 이사를 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공방의 아버지인 천(泉)은 주나라의 태재(太宰)*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鴻臚卿)*이 되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滸)가 교만하고 분수 넘침이 지나쳐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호제(虎帝)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富民侯)로 임명했다. 그 무리인 염철승(鹽鐵丞)*근(僅)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家兄)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子母)*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B]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좇도록 하고,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당시에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권(文券)*과 서류가 산과 같이 쌓여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으니, 소위 시장 바닥 사귀어란 이런 것을 말한다. 공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격오(格五)*를 일삼았다. 그러나 승

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백 근과 같다.”라고 했다.

[C]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공우(貢禹)가 글을 올려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다만 전매의 이익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주역(周易)』의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 곡량(穀梁)의 학(學)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을 들었다.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공방이 문하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님을 만나, 임금님이 나라를 잘다스리도록 교화하여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다. 이제 조그마한 죄로 내쫓김을 당했다. 그러나 등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서 이익도 손해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실오라기처럼 살았으니, 앞으로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강회(江淮)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약야계(若冶溪) 위에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잡고 술을 사서 민상(閩商), 해고(海賈)와 함께 술 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칠 것이다. 비록 천종(千鐘)의 녹(祿)과 오정(五鼎)*의 음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삶과 바꾸겠는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책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중략)

[D]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안(劉晏)이 탁지판관(度支判官)이 되었는데, 당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유안이 공방의 계책을 사용하여 국가 재정을 이롭게 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당서(唐書)』 「식화지(食貨志)」에 실려 있다. 그런데 공방이 죽은 지 오래되어, 그의 문도들도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공방의 문도들을 수소문하고 일으켜 다시 기용했다.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개원(開元)·천보(天寶) 연간에 크게 실시되었고, 공방에게는 조의대부 소부승(朝議大夫少府丞)이라는 벼슬이 추증되었다. 송나라 신종(神宗) 때에 왕안석(王安石)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여혜경(呂惠卿)을 끌어들이어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고 청묘법(靑苗法)*을 사용했다. 그래서 세상이 소란해지고 크게 곤궁해졌다. 소식(蘇軾)이 청묘법의 폐단

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 법을 모두 배척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에 빠져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조정의 선비들은 감히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사마광(司馬光)이 재상(宰相)이 되어 청묘법을 폐지하자고 요청하고 소식을 천거해 발탁하니, 공방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시는 융성해지지 못했다. 공방의 아들 윤(輪)은 뒤됨이가 경박하여 세상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다. 뒤에 윤이 수형령(水衡令)*이 되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사신(史臣)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림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서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들을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했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서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 임춘, 「공방전」

*공방: '엽전'을 달리 이르는 말. 엽전의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름.

*관지: '꺄다'는 뜻. 돈을 꺄미로 만들기 때문에 '꺄 관' 자를 써서 '관지'라 함.

*태제: 중국 은나라·주나라 때에, 천자를 보좌하던 벼슬.

*홍려경: 외국에서 방문한 사신을 접대하는 관직.

*염철승: 소금과 쇠를 가리키는 의인화된 관직 이름.

*자모: 원금과 이자를 가리킴.

*문권: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격오: 옛날 놀이로, 지금의 주사위 놀이와 비슷함.

*오정: 소, 양, 돼지, 물고기, 순록을 담아 제사 지내는 다섯 개의 술을 의미하지만, 이 글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뜻함.

*청묘법: 왕안석이 시행한 신법의 하나로, 농촌에 낮은 이자의 자금을 융통하여 가난한 농민을 보호하려고 했던 법.

*수형령: 세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직.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제는 관상 보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 공방의 선조가 세상에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
- ② 염철승 근은 공방의 아버지를 믿고 따랐기에 그와 함께 벼슬을 하며 조정에 참가하였다.
- ③ 간관들은 공방의 위세로 보복을 입을까 두려워하여 그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지 못하였다.
- ④ 곡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은 군비 마련을 위해서 공방의 업무를 줄일 것을 간청하였다.
- ⑤ 왕안석이 나라일을 맡아보던 때에는 공방의 무리들의 세력이 성하게 되어 세상이 시끄러웠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공우가 ㉠을 말한 의도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주역』의 '해괘(解卦)'에는 '짐을 등에 지고 수레에 타니 도적을 불러들인다(負且乘, 致寇至)'라는 구절이 있다. 수레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타는 것이며, 등에 짐을 지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소인의 일이다. 만약 짐을 진 소인이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 위에 앉아 있다면, 이 모습을 본 도적은 소인이 등에 진 것이 남의 재물을 훔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강도로 돌변해 이를 빼앗으려 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군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천한 사람의 행실을 하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① 공방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 하므로, 공방을 관직에서 내쫓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② 공방이 맡은 관직은 그 사람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관직이므로, 공방의 직분에 적합한 새로운 관직을 내려 주어야 한다.
- ③ 공방은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에만 신경 쓰는 소인이므로,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의 관직을 삭탈하여 처벌해야 한다.
- ④ 공방은 관직에 등용되기 전에 탐욕과 비루함으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비리를 일삼는 다른 관리들을 경계하기 위해 공방을 처형해야 한다.
- ⑤ 공방은 능력에 비해 높은 벼슬을 원하는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주므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방의 청탁을 받고 등용된 이들을 파면해야 한다.

3. [A]~[E]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공방의 자와 선조가 세상에 나오게 된 내력, 그리고 선조가 자리 잡은 장소를 소개하며 공방의 선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공방의 인물됨을 언급한 뒤 공방이 세상에 미친 영향 등을 소개하며 벼슬아치로서 공방이 보인 모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공방이 정치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과 그 이후 공방이 겪는 고초를 소개하며 공방의 노후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공방의 문도들이 관직에 등용된 배경과 공방의 무리와 공방의 아들의 몰락 과정을 소개하며 공방의 후손들의 행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E]에서는 유교적 관점에서 공방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평가하며 공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전(假傳)은 사람들을 경계(警戒)하고 권선(勸善)하기 위해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의 형식으로 서술한 문학 갈래로, 그 대상은 주로 술이나 돈, 대나무 등과 같이 인간 생활과 관련된 사물들이다. 이때, 가전의 작가들은 자신이 의인화한 사물에 대한 관점을 역사상의 인물이나 실제 지명 및 관직들을 활용하여 제시하는데, 돈을 의인화한 「공방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한나라의 벼슬을 하면서도 오나라의 비를 도와 이득을 취한 공방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공익보다 자신의 사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호제 때 부민후로 있으면서 물가를 조절하고 곡식을 천대하여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공방에 대한 평가에서, 백성들이 돈을 중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군.
- ③ 호제 때의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긴 까닭에 공방이 거두어들인 문권과 서류가 산과 같이 쌓였다는 것에서, 돈이 벼슬하는 사람들의 청탁의 대가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강희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민상과 해고와 함께 술 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치겠다는 공방의 말에서, 돈이 없어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작가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당나라 시절 유안의 건의에 따라 공방의 문도들이 등용되어 공방의 계책이 크게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돈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군.